



소크라테스 “내년도 KIA 맨”

2023시즌에도 소크라테스 브리토(Socrates Brito-30)가 KIA 타이거즈 외야를 지킨다.

KIA가 8일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와 총액 110만 달러(계약금 30만, 연봉 50만, 옵션 3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마쳤다.

이와 함께 올 시즌 KBO리그에 데뷔한 소크라테스는 내년 시즌에도 KIA 선수로 활약한다.

소크라테스는 2022시즌 127경기에 나와 514타수 160안타로 0.311의 타율을 기록했다. 17개의 홈런과 함께 77타점도 수확했고, 83득점 OPS 0.848을 기록했다.

특히 5월에는 KBO에서 가장 뜨거운 활약도 선보였다.

소크라테스는 5월 한 달 144개의 안타를 날리면서 0.415의 타율을 기록, 안타와 타율 1위에 이름을 올렸다.

44안타는 역대 KBO 월간 최다 안타 2위이자, 외국인 선수 공동 1위 기록이다. 소크라테스는 또 5월 타점 공동 2위(28타점), 득점(20점) 3위도 찍었다.

KIA는 소크라테스의 활약 속에 5월 한 달 18승 8패를 기록하며 뜨거운 질주를 펼쳤다.

KIA의 중심타자로 해결사 역할을 한 소크라테스는 중원에서 견실한 수비도 보여주면서 KBO리

총액 110만 달러에 재계약 “잘 준비해 좋은 모습 보이겠다” 외국인 투수들 계약은 유동적

그 데뷔 첫해 올스타 베스트 멤버로 선정됐다. 올스타전 참가는 어렵게 부상으로 불발됐다. 소크라테스는 7월 2일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김광현의 직구에 코뼈가 골절되면서 잠시 결연을 멈췄다.

이후 소크라테스는 8월 2일 한화전을 통해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팀워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KIA는 빠르게 소크라테스와의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소크라테스는 “내년에도 KIA 유니폼을 입게 돼 영광이다. 최고의 동료들과 땀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면서 “KBO리그 최고인 타이거즈 팬들을 하루 빨리 보고 싶고,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비시즌에 잘 준비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선은 이제 외국인 투수에 쏠린다. KIA는 올 시즌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로니 윌리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으로 중도에 퇴출당했고, 선 놀린은 시즌 막바지 팀의 에이스로 역할은 했지만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면서 21경기에 나와 124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중도에 합류한 토마스 파노니는 14경기에 나와 82.2이닝을 던지면서, 2.7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현재 KIA의 2023시즌 외국인 투수 시나리오는 ‘열린 결말’이다.

상황에 따라 두 명의 외국인 선수를 모두 교체할 수도 있고, 1명을 새 얼굴로 채우거나, 두 선수 모두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게 KIA의 입장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유동적이다.

일단은 ‘교체’에 방점을 두고는 있다. 두 선수 모두 ‘안정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타자들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아쉽다는 것이다.

KIA는 더 강력한 ‘원투펀치’ 후보군을 세밀하게 지켜보면서 접촉하고 있다.

동행이든 이별이든 놀린과 파노니도 내년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까지는 외국인 투수 구성에 관련한 시나리오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골프 경기 도중 손상된 클럽 교체 가능

2023년 골프 규칙 개정

드롭한 공 저절로 또 물에 빠지면
벌타 없이 공 위치 다시 정한다

새해부터는 경기 도중 손상된 클럽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게 골프 규칙이 바뀐다.

세계 골프 규칙을 제정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 R&A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골프 규칙을 8일 발표했다.

먼저 라운드 도중 손상된 클럽을 예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체할 수 없었지만 새로 바뀌는 규칙에 의하면 클럽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가 손상된 클럽을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체 과정에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해서는 안 된다.

2019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 트러스트에서 드라이버가 손상됐지만 교체할 수 없었던 웨브 심프슨(미국)이 새 규정에서는 드라이버를 바꿔 쓸 수 있게 된다.

또 드롭한 공이나 리플레이스한 공이 저절로 움직여 헤저드로 다시 들어갈 경우 벌타 없이 다시 공의 위치를 정할 수 있게 했다.

2019년 PGA 투어 피닉스 오픈에서 리키 파울러(미국)는 칩샷 한 공이 굴러 물속으로 빠졌고, 이 공을 드롭한 뒤 다음 샷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이 저절로 움직여 다시 헤저드 구역에 들어갔다.

당시 파울러는 또 벌타를 받았지만, 새로 규정되는 규칙으로는 벌타 없이 다시 공을 드롭할 수 있다.

엔플레이어블 선언 후 구제 절차에도 변경이 생긴다.

엔플레이어블 선언 후 후방선 구제를 받는 경우 한 클럽 이내 드롭한 결과 공이 기준점보다 홀과 가까운 쪽으로 놓이더라도 그대로 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장애가 있는 선수들에 대한 규칙을 명문화하고, 선수가 스코어카드에 핸디캡을 따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는 등의 규칙 변화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KLPGA 2연속 우승 이소미, 세계랭킹 48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을 거둔 완도 출신 이소미(23)가 세계랭킹 50위 이내에 다시 진입했다.

이소미는 8일 발표한 주간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보다 9계단 오른 48위에 자리 잡았다.

이소미는 지난달 30일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이어 6일 에스오일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20년 휴엔케이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내고선 세계랭킹 42위로 올라오면서 처음 50위 이내에 진입했던 이소미는 이후 50위 밖으로 밀려다가 복귀하기를 한동안 되풀이했다.

지난해 대우위니아 MBN 레이디스 오픈 우승으로 49위로 올라섰지만, 올해는 60위권에서 맴돌았던 이소미는 1년 만에 50위 이내에 복귀했다.

이소미가 48위로 올라오면서 50위 이내 한국 선수는 12명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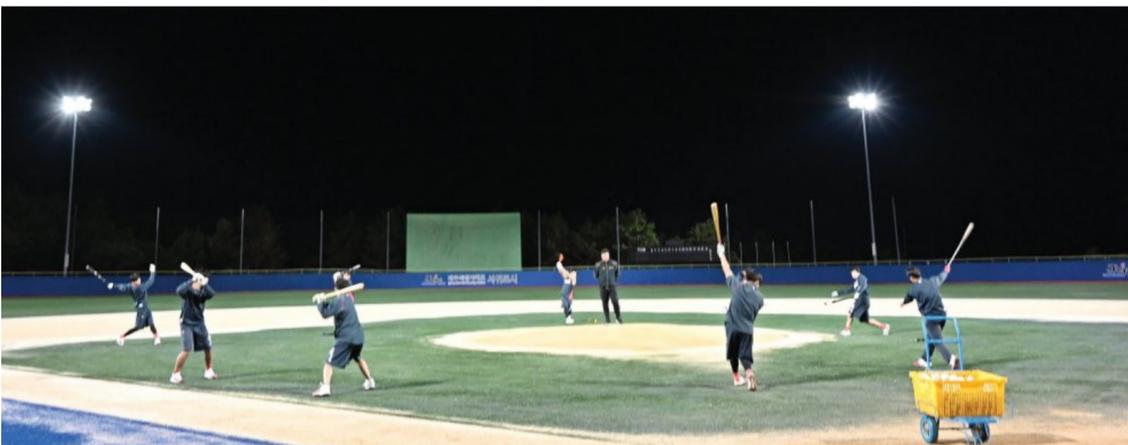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토트 저팬 클래식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제마 드라이버(스코틀랜드)는 196위에서 92위로 상승했다.

아타야 티파꾼(태국)이 1위를 지켰고 고진영(27), 리디아 고(뉴질랜드), 넬리 코다(미국), 이민지(호주)가 지난주에 이어 2~5위를 고수했다.

/연합뉴스



이소미



제주도 마무리캠프에 참가한 KIA 타이거즈들이 강창학 야구장에서 조명을 켜고 야간 훈련을 하고 있다.

/제주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들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KIA 타이거즈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KIA는 제주도에 마무리캠프를 꾸리고 내년 시즌을 위한 밑바탕을 다지고 있다.

7명의 신인 선수들과 1군 경험이 없거나 적은 신예 선수들로 구성된 캠프. 김종국 감독을 비롯한 1군 코치진이 캠프를 이끌면서 선수들은 눈에 불을 켜고 ‘기회의 캠프’를 보내고 있다.

김종국 감독이 ‘체력’을 기본으로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밤에도 KIA의 훈련은 계속된다.

오전·오후 체력 기술 훈련에 이어 웨이트까지 소화한 뒤 KIA 선수들은 숙소로 가는 버스에 오른다. 하지만 이 버스는 해가 진 뒤부터 KIA의 캠프지인 강창학 경기장으로 돌아온다. 물론 버스는 선수들로 만원이다.

저녁 식사 이후 야간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KIA 선수들은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야 한다.

KIA 제주도 마무리 캠프 밤에도 강도 높은 훈련 계속 “훈련 끝나 공 주울 때가 행복”

타자는 방망이를 들고 조명탑이 켜진 그라운드로 향하고, 투수는 실내 연습장으로 걸음을 옮긴다.

쌩쌩한 밤바람 탓에 긴 후드티 차림으로 경기장을 찾지만 타자들은 이내 반소매 차림이 된다.

허공을 가르는 배트 소리와 함께 코치들의 응원 소리가 그라운드에 울려 퍼진다.

이범호 타격 코치는 “머릿속에 특정 투수를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그 투수의 움직임에 맞춰 스윙하라”고 주문한다.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제시한다.

타자들은 실제로 투수와 상대하는 장면을 생각

하면서 자신의 리듬에 따라 방망이를 휘두른다.

이어 진짜 공을 때리면서 까만 밤하늘이 하얀 야구공으로 수놓아진다.

코칭스태프가 총출동해 공을 던지기 때문에 야수들은 2인 1조가 돼 부지런히 공을 때린다. 외야 담장을 때리는 타구에 아쉬운 탄성도 나오고, 밤하늘을 가르는 시원한 타구에 감탄사도 나온다.

선수들의 얼굴이 땀범벅이 되고 나서야 KIA의 야간 훈련이 끝난다.

선수,코치들이 함께 외야에서 공을 모두 수거해야 길었던 제주도 캠프의 하루가 마무리된다. 비로소 선수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배트를 휘두르고 또 휘두르느라 손바닥이 물집 범벅이 된 신인 정해원은 “야간 훈련이 끝나고 공을 주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프로의 첫 캠프를 이야기했다.

/제주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에릭센, 심장마비 극복 카타르 월드컵 출전

덴마크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

심장마비를 딛고 그라운드로 돌아온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다.

에릭센은 7일(이하 현지시간) 덴마크축구협회가 발표한 21명의 카타르 월드컵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덴마크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해 온 에릭센은 지난해 6월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경기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심장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인터 밀란(이탈리아) 소속이던 그는 심장 제세동기를 단 채로 세리에A에서 뛸 수 없어 계약을 해지했지만, 올해 1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렌트퍼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다시 섰다.

3월에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지 9개월 만에 덴마크 대표팀 복귀전을 치렀고, 7월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3년 계약을 했다.

복귀를 준비하며 “나의 목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는 것”이라고 밝혔던 그는 이를 실현하게 됐다.

손흥민과 잉글랜드 토트넘 홋스퍼에서 한술밥을 먹는 미드필더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와 골키퍼 카스페르 슈마이켈(니스), 수비수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리즈 유나이티드) 등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각국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에 26명의 엔트리를 꾸려 출전할 수 있지만, 카스페르 홀만트 덴마크 대표팀 감독은 21명만 먼저 선발했다.

남은 5명 명단은 월드컵 전 유럽 리그 마지막 경기들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홀만트 감독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에릭센

“5개의 자리를 놓고 10명, 12명의 선수가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타르 월드컵은 20일 개막하며, 최종 엔트리는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